

“보편·공평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해야”

광주 혁신추진위 25개 혁신과제 권고안 내내 “예산 수요자 중심 복지재정 재구조화 필요”

광주시장 직속기구인 '광주 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성 복지대상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25일 내놓았다.

혁신추진위는 또한 복지수요처 등 복지충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광주시 예산 50%에 육박하는 2조원의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찾는 '복지재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시정혁신 권고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25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우선 “공공주도·수요자 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해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정책 혁신에서 있어서는 광주복지에 대한 대상과 인구추이, 복지총량, 복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부족한 분야는 보충하고, 과하거나 중복된 영역은 덜어내는 복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혁신추진위는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추진위의 복지분야 권고 가운데는

소지역 단위의 복지 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한 대목이 눈에 띈다.

소지역 단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는 동(洞)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돌봄 시스템이다. 특정 계층이 복지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작아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는 돌봄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처럼 혁신추진위가 권고문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 가운데 하나인 '광주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건립'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시는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오는 2022년까지 광산구 비아동 일원에 노인복합시설

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매상담실 등이 복합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빛고을·효령건강타운처럼 노인들의 여가시설 중심으로 건립되는 내용으로, 복지전문가와 광주시의회 일각에서는 “2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은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추진위 역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추진위는 이날 권고문에서 복지관련 공무원, 민간종사자, 주민 등의 복지역량 강화에도 광주시가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지시설에서 비리 발생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내달부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시행

상업지역·시가지경관지구 대상

광주시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불균형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전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용역을 추

진하며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7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10.56km²로, 건축물의 기준 높이는 기반시설인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가로구역의 평균 깊이를 합한 값에 높이계수(1.5)를 곱해 산출한다.

공개공지, 기부채남 등에 따라 기준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

역·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건축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유예 규정이 적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유전자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 호응

27억 들여 2442개 학교 공급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유전자변형 없는(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올해 도비 27억 원을 들여, 도내 유치원·학교 등에 간장·된장·두부 3품목을 Non-GMO 식재료로 대체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2천442곳 21만 3천 명으로, 시군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한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와 학교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안전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이 아동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Non-GMO 가공품은 국내산 콩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전통 방식으로 숙성해 만든다. 색깔이 검고, 맛도 짜 기성 제품에 맛이 길든 학생들에게는 다소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 학생들의 입맛을 맞춰가고 있다. 또 학교에서 GMO 유해성과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Non-GMO 가공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양교육도 동시에 하고 있다.

전남도는 학교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GMO 성분검사를 해 납품 식재료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사용량이 많은 식용유와 옥수수콘까지 내년부터 Non-GMO 식재료 급식 제공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지하역사 18곳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광주시는 관내 지하역사 18곳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 역사 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이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까지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오는 7월부터 이용 승객이 많은 역사

순서대로 8곳(남광주, 문화전당, 금남로 4가, 쌍촌, 운천, 상무, 광주송정)에 우선 설치한다. 측정망의 측정자료는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한국환경공단 운영)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측정자료를 활용해 역사 내 공기질이 상시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천주교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에서 주교단이 파티마 성모상을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다. 천주교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성당에서 남북통일 기원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전국 규모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열리기는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시-LG전자, 지역 에어가전 기업과 상생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협약

2025년까지 평동산단 클러스터

광주시가 엘지(LG)전자와 손잡고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에어(Air·공기)가전 공동개발에 나선다.

광주시와 엘지(LG)전자(주), 광주테크노파크는 25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이갑규 엘지(LG)전자 부사장,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지역 에어가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제품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엘지(LG)전자는 공동편당하고, 6월부터 엘지(LG)전자와 지역 에어가전 기업은 공기정정기 제조기술을 상호 제휴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은 학교용 공기정정기 제품을 생산해 10월 국내 전시회에 출품하고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지역 학교에 시범 보급·실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에 공기정정기 제품 생산을 위한 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3500억원(국비2550억원·시비 600억원·민자 35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평동산단에 약 10만㎡ 규모의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기산업 클러스터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집적화 실증단지 등이 들어서며 시는 8월 중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최영호 전 남구청장, 청사 개발비 상환 감사원 감사 반박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청사 위탁 개발비를 남구청이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최 전 청장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의 재정 부담 없이 청사 개발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이 잘못된 법령 해석과 계약서 문구 자체를 왜곡해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에 재정 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청사 공실률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청장은 “설령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 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는 2011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감사원은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301억원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콘서트

달빛은 달구별 대구의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동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동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19.6.29 SAT - 6.30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멘토특강
김종철 교수
한양대 연극영화과 특임교수

달빛나눔콘서트 비스타

6월 29일(토)	달빛소동 & 달빛나눔	14:00~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15:00~18:00 멘토특강 & 공감콘서트
6월 30일(일)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천촌발산마을, 한벽당 등)	19:00~21:00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대인아시장 투어

주최 **광주일보 영남일보** 주관 **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 CITY**

달빛소나기 광주시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에 관심 많은 열정적인 광주 청년(20~30대)
- 참가시간 : 2019. 6. 29(토) 14:00~20:00
- 모집인원 : 선착순 80명
-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 모집기간 : 2019. 6. 27(목)까지
- 참가비 : 없음(식사/기념품 제공)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팀 062)220-0541